

‘서울 방판발’ 순천 n차 감염 폭발

보건당국, ‘다중이용시설 등 마스크 착용’ 무색

확진자 동선·접촉자 규모 5~6차 감염확산 ‘기로’

서울 방문판매 업체를 다녀온 70대 여성으로부터 시작된 순천의 연쇄 집단감염이 헬스장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4차 감염으로 폭발적 증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노마스크가 무더기 감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전남도와 순천시에 따르면 순천은 서울 관악구 방문판매 업체를 다녀 온 뒤 20일 확진된 전남 50번 확진자로부터 시작된 감염이 헬스장과 식당 등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이날 오전 14명이 추가되는 등 총 3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 14명 모두 40대 여성(전남 75번)이 다녀간 청암위트니스스앤스파에서 운동한 11명과 이 여성과 모임 및 식사를 한 2명, 아파트 접촉자 1명으로 파악하고 정밀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40대 여성 A씨는 서울방문판매 업체를 다녀와 확진된 전남 50번의 지인으로 산책 등을 같이 다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22일 확진전까지 18일~20일 사이 수차례 헬스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특히 지난 23일 오후 3시 폐쇄된 헬스장의 CCTV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는 “코로나 감염원으로

전남 50번 환자와 접촉해 지난 22일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여성(전남 75번)을 정밀조사한 결과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수차례 헬스장을 다녔다”면서 “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는 11명이나 무더기 확진자가 나온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보건당국은 A씨의 접촉자를 31명으로 파악하고 청암헬스장 292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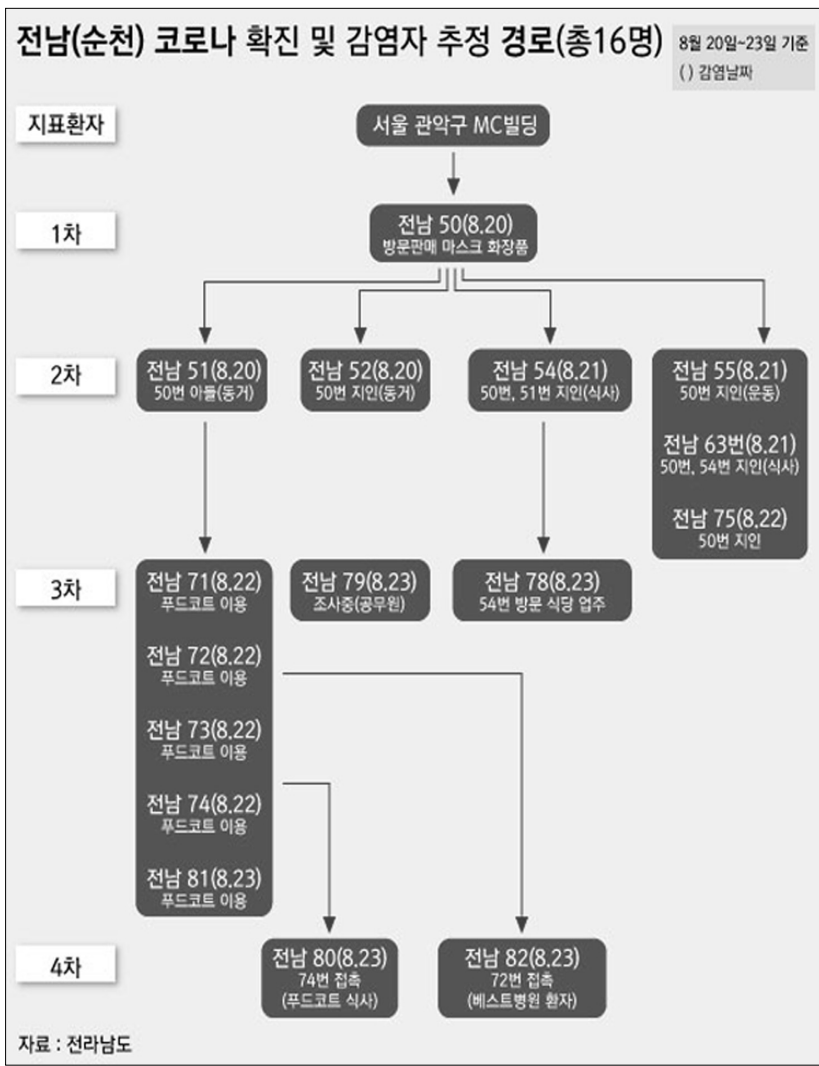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A씨의 배우자, 자녀 2명은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순천은 50번 환자의 아들(전남 51번)이 다녀간 순천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업주와 이용객 등 5명이 22~23일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남 50번 지인이 54번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 업주(전남 78번)도 23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푸드코트에서 감염된 전남 72번이 근무하는 베스트병원에서 진료료 받다 60대 남성(전남 82번)이 확진됐으며 순천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면서 업주와 접촉한 50대 여성(전남 80번)도 23일 감염됐다.

서울 방판발 순천 코로나 연쇄 감염자 30명 중 16명(53%)이 푸트코트와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실정이다. 광양 모 한우식당 5명, 진도 모 식당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전남지역 다중이용 식품접객업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김영록전남지사 등 전남 보건당국이 수차례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이번 순천 사태를 볼때 먹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김 지사는 코로나가 발생할 때마다 외출 자제, 외식 자제, 소모

임 자제와 함께 다중시설 이용 등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수시 환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헬스장 11명 확진자의 추가 접촉자가 어느 규모냐에 따라 5, 6차 감염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학조사관을 파견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과수원 주인, 태풍 대비 중 나뭇가지에 걸려 숨져

25일 오전 11시40분께 전남 나주시 공산면 배 과수원에서 경운기를 돌던 농가 주인 A(67)씨가 배 나뭇가지에 신체 일부가 걸렸다.

이 사고로 A씨가 동료들에게 구조된 직후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부상 중인 태풍 ‘바비’에 대비하려고 과수원 곳곳을 살피다 이러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과수원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기학원 수강생 어머니 상대사기 60대 배우 실형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자 육성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의 어머니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배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단독) 윤봉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24일부터 2017년 3월28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자 육성학원에 다니는 수강생의 어머니 B씨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원 직원을 통해 B씨에게 마치 아들을 방송에 출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하며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가 투자해 놓은 투자금 3억 원을 6개월 뒤 돌려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했다.

A씨는 당시 어디에도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또 채무가 많은 반면 학원은 적자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방송 출연 등을 제안하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는 점, 2017년 12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원금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례서 SUV에 치인 노인 2명 숨져

24일 오후 7시48분께 전남 구례군 토지면 외곡리 피아골 삼거리에서 A(80)씨가 몰던 SUV 차량이 B(86·여)씨와 C(76·여)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C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양이 9마리 상자에 넣어 죽인 흉악범

전남 목포에서 길고양이 9마리가 밀폐된 상자에 담겨 죽은 채 발견된 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목포고양이보호연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목포시 용당동 고양이보호연합 사무실 앞에 놓인 나무 상자 안에서 길고양이 10마리 중 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단체는 생존한 고양이 1마리(3개월령 추정)를 동물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있다. 죽은 고양이 9마리 중 6마리는 1세 이상 성묘, 3마리는 2~12개월 미만 자묘로 추정된다.

죽은 고양이들은 못으로 밀폐된 나무 상자(가로 40×세로 80cm)에 담겨 있었다.

단체는 상자 안 오물과 뒤엉킨 고양이들의 상태로 마취 누나가 고양이를 먹이로 유인해 상자에 가둬 죽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체는 이날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 누나가 이 상자를 사무실 쪽에 놓고 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

광주지검,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관용 원칙 적용

거짓 진술·역학조사 거부 행위 등 엄정 대응

광주지검 코로나19 대응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방역 당국의 진단검사,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회피하는 행위를 지목했다.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한 임원 또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도 포함했다.

검찰은 “방역체계를 교란시키는 악의적인 방역 활동 저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재 광주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84명, 전남은 97



광주지검은 지난 4일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다가 20일 만인 지난 23일부터 다시 2단계로 재격상했다. 최이슬 기자

찾감에 동료선원

흥기로 찢른 60대

목포해양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흥기로 찢른 혐의(살인미수)로 선원 A(63)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5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서쪽 인근 해상에서 동료선원 B(61)씨의 가슴부위를 흥기로 찢른 혐의다. 신안선적 14급 근해자망어선 선원인 이들은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던 중 사소한 말다툼 벌이다 찾김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중상을 입고 목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된 선원 B씨는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